



**INTERNATIONAL JOURNAL of  
CRAFTS and FOLK ARTS**

Volume 4, 2023

**UCCN 도큐먼트**

##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조정 그룹 회의

10월 6일 - 오후 2시

### 개회사

- 유네스코 문화부 사무차장 오토네(Ottone R.)씨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CCN)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네스코와 창의도시 간의 지속적인 대화에 참여해준 코디네이터와 부코디네이터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 오토네 사무차장은 2024년 연차 총회가 포르투갈 브라가(Braga)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2023년 10월에 회원 도시들에게 날짜가 발송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올해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연례 총회를 개최할 수 없었던 진례 없는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유네스코 사무국이 이 행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참가자들에게 유네스코 총회는 제42차 조직 프로그램 및 예산 2024-2025(42C/5) 회의에서 UCCN과 2005년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관한 협약 간의 더 강력한 연계와 그에 필요한 전용 예산을 제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앞으로의 2년동안 유네스코는 네트워크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역량 강화 활동의 개발을 장려함으로써 프로그램 실행에 현장 사무소를 더욱 참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 UCCN 온라인 회의 (10월 23일)

- 10월 23일 온라인 회의는 회원국 도시들이 좋은 실천사례들을 교환하고, 네트워크의 우선 순위 및 문화 프로그램을 실행함에 있어 네트워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그는 "문화: 지속가능한 발전을 여는 열쇠"라는 주제 아래 2022년 몬디아컬트 (MONDIACULT) 선언의 주요 우선순위들에 초점을 맞추어 공개 교류 세션이 이루어지며, 여기에 도시 대표들이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첫 번째 주제인 "창의도시의 경제적 잠재력 향상 및 디지털 시대의 창의성 발휘"에서는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진하는 도시 정책의 역할 뿐만 아니라 문화 부문에서 디지털화에 따른 기회와 도전에 대해서도 탐구할 것이다.
  - 두 번째 패널에서는 '사람 중심의 도시정책 구축과 창의성을 통한 학습의 촉진'을 주제로 시민의 문화적 권리 존중을 보장하고 문화와 교육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창의도시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세 번째 패널인 "기후 및 위기 대응력과 회복력 구축을 위한 문화의 역할 증대"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창의도시의 대응을 다루고, 글로벌 팬데믹에서부터 도시지역의 예기치 못한 성장, 그리고 비상사태 대비 및 복구 계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기들을 다룰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회의 기간 동안 코디네이터들이 하위부문별 네트워크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각 부문별로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활동들, 특히 네트워크의 하위 부문 간의 공동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6분 안에 발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브라가 (Braga)도 내년 연례 총회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연례 총회 개최

- 세 명의 코디네이터(영화, 미식, 미디어 아트 부문 네트워크)는 특히 도시의 예산 배정과 네트워크의 평판 측면을 고려할 때, 지자체의 취소로 인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회의 일정을 설정하는 등 연례 총회 개최와 관련된 의사 소통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예를 들면 개최 도시가 연례총회 개최 최소 3-4개월 전에는 협약에 서명을 해야 한다는 등의 구속력 있는 협약 메커니즘 개발이 제안되었다. 이에 대해 오토네 사무차장은 세계유산위원회와 같은 다른 유네스코 프로그램에도 그러한 기한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8개월 전에 협약에 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부 절차의 지연으로 인해 계약이 겨우 1-2개월 전 에서야 체결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가능한 조치와 해결책에 대해서도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그는 또한 유네스코가 정부간 기구이기 때문에 개최국이 관련 정부 부처와 함께 개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참가자들에게 알렸다. 유네스코는 향후 개최 도시 신청에 대하여 더욱 강력한 국가 승인을 보장하고 추가적인 지원 증명을 요구할 것이다. 불가항력적인 경우, 미래에는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에서 행사를 개최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잠재적인 해결 방안은 자금 확보, 특히 회원 도시들의 자발적인 기부가 전제되어야 한다.
- 오토네 사무차장은 유네스코가 하위부문 네트워크 코디네이터 및 부코디네이터와의 정기 회의 소집을 환영한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따라서 내년 연례 총회 이전에 두 번의 회의가 조직될 것이라고 참가자들에게 발표했다. 또한, 그는 모든 창의 도시의 시장들과 마찬가지로 남반구의 시장들도 지리적으로 균형 잡힌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금 모금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밖에도 회원국 도시들이 사무국을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국가위원회가 UCCN을 위한 전용 예산을 배정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 마지막으로, 오토네 사무차장은 2024년에 열리는 차기 연례총회 개최 도시인 브라가의 강한 다짐과 그 총회에서 몬디아컬트(MONDIACULT)를 통합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 개최 도시 선정 절차

- 이와 관련하여, 오토네 사무총장은 UCCN 사무국이 현재 2025년 UCCN 개최 도시 선정을 위한 온라인 투표를 위해 기술적 방법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으며, 투표 플랫폼에 대한 링크가 가능한 한 빨리 공유될 것이라고 참가자들에게 알렸다.

### 개정된 보고 메커니즘

- 오토네 사무차장은 지난 4월 회의에서 제기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UCCN 회원 모니터링 및 보고 연습이 추가로 개정되었음을 조정 그룹에 알렸다. 새롭게 디자인된 온라인 양식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회원국 도시의 기여도를 더 잘 평가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2025년에 발간될 문화정책에 관한 글로벌 보고서에 도시의 기여를 통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식 공유와 지속가능한 문화 정책 설계를 위한 부문별 플랫폼을 개발함으로써 UCCN 과 유네스코의 문화협약 및 권장사항 간의 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 IOS 평가

- 네트워크에 대한 IOS의 평가 결과는 2024년 4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와 2024년 UCCN 연례 총회에서 발표될 것이며, 제안된 권고사항들은 UCCN의 적합성, 일관성,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 또한 곧 출판될 지역, 국가, 국제 차원의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영향이라는 정책 문서에 대한 정보도 공유되었다. 이 보고서는 문화와 창의성을 통해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도시의 원동력을 강조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유네스코는 교류, 동료 학습, 그리고 협력을 위한 국제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창의도시들을 지원하고자 한다.

## 2023 가입신청 접수

- 오토네 사무차장은 2023년 접수된 가입 신청서 평가 과정에서 큰 도움을 준 조정 그룹에 감사 표하고, 일부 하위 부문 네트워크의 추가 요소와 설명이 아직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국이 평가 결과를 취합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 조정 그룹 참가자 명단

미디어 아트 부문 네트워크	
크리스 베일리(Chris Bailey)	요크(York) (부코디네이터)
음악 부문 네트워크	
산드라 월(Sandra Wall)	노르코핑(Norrköping) (코디네이터)
제이콥 와그너(Jacob Wagner)	캔자스 시티(Kansas City) (부코디네이터)
미식 부문 네트워크	
에드아도 세이조(Eduardo Seijo)	메리다(Merida) (코디네이터)
콜린 스웨인(Colleen Swain)	샌 안토니오(San Antonio) (부코디네이터)
아리사 라리오스(Arisa Larios)	샌 안토니오(San Antonio) (부코디네이터)
문학 부문 네트워크	
존 케년(John Kenyon)	아이오와 시티(Iowa City) (코디네이터)
필름 부문 네트워크	
조르디 헤르난데즈(Jordi Hernández)	테라싸(Terrassa) (코디네이터)
헤지(Hyejee)	부산(Busan) (부코디네이터)
디자인 부문 네트워크	
신디 리(Cindy Lee)	우한(Wuhan) (코디네이터)
공예 및 민속 예술 부문 네트워크	
정병훈(Byong Hoon Jeong)	진주(Jinju) (부코디네이터)